

# 주간 통일정세

2017-13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3.25	北매체 인공위성 개발사 연재...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연합뉴스) 北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우리식 사회주의' 강조(연합뉴스)
	3.26	北 "최고준엄 노린 美특수작전 짓밟겠 것...선제적 특수작전"(연합뉴스)
	3.27	北김정은, 삼지연군 개발에 '각별'...트랙터·교육자재 보내(연합뉴스) 공고 대표단, 김영남에 김정은 선물 전달(연합뉴스) 김창렬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 니우시 대통령에 신임장 제정(연합뉴스)
	3.28	北김정은, 98살 할머니 항일빨치산에 '살가운 예우'(연합뉴스)
	3.29	北 "북핵은 동북아 정의의 보루...세계평화 수호" 궤변(연합뉴스)
	3.30	北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 IPU 총회 참석차 출국"(연합뉴스)
		北 농근맹 위원장 리명길에서 김창엽으로 교체(연합뉴스)
		北 핵·경제 병진노선 4주년... "핵 억제력 최상의 경지"(연합뉴스)
	3.31	北 원로 언론인 김기룡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연합뉴스) 北, '핵-경제 병진노선' 발표 4주년... "항구적 전략 노선"(연합뉴스)
	경제	3.25
3.26		대북제재로 '돈 가뭄' 北...금강산·신의주에 잇단 투자권유(연합뉴스)
		"北, 러시아내 파견 노동자 귀환조치...인력 물갈이 중"(연합뉴스) 자강도 공장 기업들, 1분기 인민 경제계획 104% 초과 완수(연합뉴스)
3.27		北 "수십만t 규모 양질 석탄광 새로 발견"(연합뉴스)
		"北, 걸프국서 위조품 밀매"...외화벌이 대체시장 노리나(연합뉴스)
3.28		"北, 지난달 中에 석탄 1천억원어치 수출 ...작년대비 43%↑"(연합뉴스)
3.29	"北노동자 100여명, 러시아 경기장 건설현장서 노역"(연합뉴스)	
사회 문화	3.26	"北, '석유수입 통로' 남포항 송유시설 확장"(연합뉴스)
		北, 완공 앞둔 '신도시' 여명거리 대대적 홍보(연합뉴스)
		北 연구소, 오수 이용 전력 및 식물 영양액 생산 공정 도입(연합뉴스)
	3.27	北,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대학 신설(연합뉴스)
		북한, 신형 무궤도 전동차 개발... "축전지도 이용"(연합뉴스) 北, 4월 신학기 준비 한창...기술高 첫 개교(연합뉴스) 평양기계종합대학 연구진, 소출력 인버터 자체 개발(연합뉴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 전방향 어군(魚群) 탐지기 개발(연합뉴스)
		“北, 中 오가는 화물트럭에 보위원 동승… 南물품 유입 감시”(연합뉴스)
	3.28	北 택시기사 요주의…“외국인 동태 파악 정보원으로 활용”(연합뉴스) 北신문 “옥류아동병원, 20년간 3천명 심장 수술”(연합뉴스)
		北 “올해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실시”…1년 지연(연합뉴스)
	3.29	“북한 내 종합시장 40개…종사자 110만명”(연합뉴스) 北 ‘축구영재 양성소’ 평양국제축구학교 첫 졸업생 배출(연합뉴스)
		“북한내 불법의료행위 성행…낙태수술 1건당 5만원”(연합뉴스)
	3.30	평양 신발공장에 김정은 현지지도 표식비 건립(연합뉴스)
	3.31	“北, 김일성 생일 앞두고 주민 이동 통제 강화”(연합뉴스)
		北 고위 외교관 잇단 대미비난 여론전…도발 명분쌓기 해석(연합뉴스)
		美, 北핵실험 가능성에 “위협 맞서 모든 역량 사용할 준비”(연합뉴스)
	3.25	“北지도자 사진 지폐 훼손 말라”…러시아, 北관광 행동지침(연합뉴스) 北 신문 “유엔 대북 인권결의는 정치 사기극”(연합뉴스)
		北매체, ‘미군 표적’ 사격 훈련 연출 동영상 공개(연합뉴스)
	3.26	“풍계리 북쪽 갭도서 차량 4~5대 포착…핵실험 준비용 가능성”(연합뉴스)
		北 “트럼프 대북정책, 오바마 ‘전략적 인내’ 답습”(연합뉴스)
		北도발에도 경협가속하는 中, 전세기취항 이어 국경무역 ‘군불’(연합뉴스)
	3.27	러, 대북관계 급속 강화…중국 빠진 자리 매우나(연합뉴스) “러 공항서 3만달러 넘는 외화 밀반출하려던 북한인 체포”(연합뉴스) 말레이 언론 “김정남 시신 넘기고 북한인 용의자도 출국 보장”(연합뉴스)
		미국, 北 ‘선제적 특수작전’ 위협에 “어떤 공격도 막아낼 것”(연합뉴스)
		北 “핵보유, 도발 아나”…美 선제타격론에 ‘견제구’(연합뉴스)
		北매체 “美당국자들 철부지 놀음…대결정책 버려야”(연합뉴스)
		北, 김정은 비난 美의원에 “선전포고격 도발…결맞은 대응”(연합뉴스)
	3.28	北매체 “평양 단둥 항공노선 취항…관광편의 도모”(연합뉴스) 中매체 “첫 단둥발 전세기 탑승 중국인들 평양서 환대”(연합뉴스) 日, 북핵·미사일 압박 계속한다…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연합뉴스) 말레이 보건장관 “김정남 시신 아직 말레이에…친족 접촉 없어”(연합뉴스) 美CNN “北, 지난주 또 미사일 엔진시험…결국 ICBM에 적용될 듯”(연합뉴스)
		美 국무부 “北 미사일 엔진시험 대가 치르게 해야”(연합뉴스)
		北 “우리 승리는 과학…美제재는 ‘행차 뒤 나팔격’”(연합뉴스)
	3.29	“北김일성 3부자 평론말라”…中, 단둥-평양전세기 주의사항 당부(연합뉴스) 말레이 언론 “김정남 시신 北에 인도될듯…30일 공항 이송 전망”(연합뉴스)
외교		
국방		

	말레이, 北연계 자국기업 수사...‘인질외교 협상’ 변수되나(연합뉴스)
	말레이, 입항 北 화물선 유엔결의안 위반 여부 조사(연합뉴스)
	美38노스 “北 핵실험 준비 유력...통신선·관측장비 가설 정황”(연합뉴스)
3.30	北 “한반도서 전쟁 터지면 美책임...섬멸의 포문 열었다”(연합뉴스)
	美 국무부, ‘대북선제공격 비현실적’ 지적에 “모든 옵션 고려”(연합뉴스)
	‘고립되는 北’...좌파집권 에콰도르도 비자면제국서 제외(연합뉴스)
	말레이 총리 “北과 매우 민감한 협상 중...참고 기다려달라”(연합뉴스)
	말레이언론 “北대사관 은신 현광성·김옥일 오늘 귀국가능성”(연합뉴스)
	싱가포르 언론 “北억류 말레이인들, 31일 아침 귀국할 듯”(연합뉴스)
	말레이 총리 “김정남 시신 北에 보내고 말레이인들 송환 합의”(연합뉴스)
	북·말레이, 김정남 시신 ‘北에 있는 가족’에 송환 합의(연합뉴스)
	“北풍계리 핵실험장에 70~100명 도열, 핵실험 감행 메시지”(연합뉴스)
3.31	中단둥-北평양 전세기 5월까지 운항...모객난에 4개월 운항지연(연합뉴스)
	“북·러, 평양 소련군 기념탑 보수”...관계강화 일환(연합뉴스)
	김정남시신 北송환한 말레이,北근로자 50명 추방...불법체류 혐의(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3.28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 공개활동	최룡해, 김기남, 김정임, 조용원, 마원춘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7. 3. 27.

- **北 김정은, 삼지연군 개발에 '각별'...트랙터·교육자재 보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1면 기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삼지연군 농업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수십 대와 많은 교육용 설비를 선물로 보냈다고 밝힘.
  - 신문은 "우리 혁명 역사의 제1페이지에 아로새겨진 영광의 땅을 태양의 영원한 성지로 (중략)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께서 삼지연군 인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정녕 끝이 없다"고 선전함.
  - 신문은 김정은이 삼지연군 주민들을 '마음속 제일 가까운 곳'에 두고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안겨주고 있다고 표현함.

2017. 3. 28.

- **北 김정은, 98살 할머니 항일빨치산에 '살가운 예우'(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28일 김정은이 최근 증·개축을 거친 조선혁명박물관을 시찰하는 모습을 방영하며 그가 황순희(98)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을 만나는 스틸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함.
  - 김정은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황순희를 허리를 굽혀 포옹하거나, 환한 웃음을 지으며 황순희의 휠체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손을 꼭 잡는 등 살가운 모습을 연출함.
  - 황순희는 과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 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여자 빨치산 혈통'의 대표 인물로, 김정숙 사망 이후 어린 김정일을 생모 못지않게 각별히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7. 3. 27.

- **北 원로 언론인 김기룡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인 노동신문사 논설위원 김기룡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30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고 보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3. 27.

### ■ 콩고 대표단, 김영남에 김정은 선물 전달(연합뉴스)

- 자클린 리디아 미콜로 콩고공화국(콩고) 보건·인구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콩고 정부 대표단이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 김창렬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 니우시 대통령에 신임장 제정(연합뉴스)

- 김창렬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가 관할국인 모잠비크의 필리페 니우시 대통령에게 지난 22일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함.

2017. 3. 30.

### ■ 北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 IPU 총회 참석차 출국”(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되는 국제의회동맹(국제의원연맹) 제 136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3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함.
-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는 다음 달 1~5일 전 세계 132개국에서 6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36차 IPU 총회가 열림.

### ■ 北 농근맹 위원장 리명길에서 김창엽으로 교체(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농근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이날 평양에서 개최됐으며 "회의에서는 리명길 위원장을 사업상 관계로 소환하고 김창엽을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고 보도함.

##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3. 25.

■ 北 매체 인공위성 개발사 연재…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24일부터 홈페이지에 '우주강국 건설사의 긍지 높은 순간들을 더듬어'라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함.
- 매체는 시리즈 1편에서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주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은 오늘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더 높이 떨치고 있다"며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첫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1호' 발사 당시를 회고함.
- 이 매체는 앞으로 연재할 시리즈 기사에서 '광명성 2호'(2009년 4월 5일), '광명성 3호'(2012년 4월 13일 실패·2012년 12월 12일 성공), '광명성 4호'(2016년 2월 7일) 등의 발사 과정을 잇달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됨.

■ 北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우리식 사회주의' 강조(연합뉴스)

- 북한이 2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당 이론잡지 '근로자'의 공동논설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함.
- 이들 신문은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12쪽 분량 공동논설에서 "일심단결과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막강한 군사력, 자강력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3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가 극도에 달하고 뜻밖의 대재앙이 닥쳐와도 비관이나 절망을 모르고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승리의 기발(깃발)을 더 높이 휘날리는 인민이 우리 인민"이라고 주장함.

2017. 3. 26.

■ 北, "최고존엄 노린 美특수작전 짓뭇갠 것…선제적 특수작전"(연합뉴스)

- 북한이 2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한미 군 당국의

- 특수작전 훈련에 대응해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주장함.
-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미제와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특수작전' 흥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 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 식의 선제타격 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입장을 포고한다"고 밝힘.
  - 또 "특수작전과 '선제타격'에 투입된 미국과 괴뢰들의 작전수단들과 병력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그대로 전개되어 있는 한 임의의 시각에 사전경고 없이 우리 군대의 섬멸적 타격이 가해지게 된다"고 주장함.

### 2017. 3. 29.

#### ■ 北, “북핵은 동북아 정의의 보루…세계평화 수호” 궤변(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9천100여자에 달하는 '조선은 세계평화의 강력한 수호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핵보유 강국인 우리 공화국은 (중략) 세계평화와 안전의 절대적 수호자"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이 기사에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비중 증대와 역내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등 나름의 정세 진단과 함께 자신들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배정책' 등을 기술함.
- 이어 "초(超)대체국의 패권과 일극 통치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정의의 보루가 동북아시아에 구축된 것은 세계평화 수호의 거대한 힘"이라며 미국의 지역 지배 흥계가 "우리의 강력한 국력에 의해 좌절당하고 있다"고 주장함.

### 2017. 3. 30.

#### ■ 北 핵·경제 병진노선 4주년…“핵 억제력 최상의 경지”(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강국의 지위를 더욱 빛내인(빛낸) 역사적 사변'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지난 4년간은 병진로선(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된 격동적인 나날이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우리의 핵 무력이 보다 높은 종합적 성능을 갖춘 정의의 핵 보검으로 강화됐다"며 "최상의 경지에 오른 핵 억제력에 토대하여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제가 핵을 독점물로 삼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며 "우리는 핵 억제력을 틀어쥐었기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못해낼 것도 없다"고 보도함.

2017. 3. 31.

■ 北, '핵-경제 병진노선' 발표 4주년...“항구적 전략 노선”(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0일 발표한 A4 용지 12장 분량의 '정부' 비망록에서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는 경제 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 노선의 제시는 김정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일대 과시였다"고 밝힘.
- 비망록은 "지난 4년간 위대한 병진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노정에서 우리 조국의 국력과 지위가 그 얼마나 높은 경지에 솟구쳐 올랐는가를 역사의 갈피에 아로새기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고 밝힘.
- 비망록은 병진 노선이 나오게 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제일 방대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항시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공갈하고 있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2017. 3. 26.

■ 자강도 공장 기업들, 1분기 인민 경제계획 104% 초과 완수(연합뉴스)

- 자강도 지방공업관리국 산하 공장 기업들이 1분기 인민 경제계획을 104% 초과 완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6일 전함.

2017. 3. 27.

■ 北, “수십만 규모 양질 석탄광 새로 발견”(연합뉴스)

- 북한이 수십만의 석탄 매장량을 새로 확보했다고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27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최근 북한의 봉천 석탄 탐사대가 평안남도 개천탄광, 봉천탄광 주변 지역에 매장된 수십만의 질 좋은 석탄을 발견했다고 밝힘.
- '조선의 오늘'은 "탐사대의 일군(일꾼)들과 대원들은 경험을 토대로 석탄 매장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3. 25.

■ 北, “신의주특구, 매혹적인 투자 적지”...투자유치 홍보(연합뉴스)

-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은 25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관광, 무역, 첨단기술산업, 보세가공, 금융업 등을 결합한 세계적인 특수경제지대,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매혹적인 투자 적지"라고 소개함.
- 신의주는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등 발달한 교통망을 통해 평양과 연결돼 있고, 압록강을 통해 중국과 이어져 무역의 중심지로, 나아가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및 금융중심지로 전망이 밝다고 이 매체는 주장함.
- 매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경제지대에서의 일관성, 입출국의 간소화, 낮은 세금, 세금 면제 및 감면을 비롯한 특혜조치와 기업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국외송금 등을 보장하며 다른 나라의 법과 국제관례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소개함.

2017. 3. 26.

■ 대북제재로 '돈 기쁨' 北...금강산 신의주에 잇단 투자권유(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웹사이트 '금강산'에 '관광 여객선 투자안내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금강산 고성항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2만~3만급 관광 여객선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외국 단독기업이나 합영 기업이 10년간 미화 1천만~2천만 달러(약 112억~225억원)를 투자해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을 겨냥함.

-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은 지난 25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관광, 무역, 첨단기술산업, 보세가공, 금융업 등을 결합한 세계적인 특수경제지대,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매혹적인 투자 적지"라고 소개하고, 외국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철저히 담보되며, 세금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다고 홍보함.

■ “北, 러시아내 파견 노동자 귀환조치…인력 물갈이 중”(연합뉴스)

-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온 이애리아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송출했던 노동자들을 물갈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함.
- 이 교수는 "(파견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관리하는 러시아 현지의 북한 담당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5년 기간인 체류 비자를 연장해 왔는데 최근에는 연장을 거의 안 해주는 것으로 안다"며 "5년 비자가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이런 현상이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오래 체류하는 노동자들이) 외부에서 북한 내부의 여러 문제점을 보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2017. 3. 27.

■ “北, 걸프국서 위조품 밀매”…외화벌이 대체시장 노리나(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와중에서 외화 획득원 확보를 위해 걸프국가를 무대로 위조품을 밀매하고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함.
- 신문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가짜 명품인 북한제 손목시계가 팔리고 있었다고 소개함.
- 신문은 "북한은 말레이시아에서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값싼 외화 획득원으로 걸프국가에 노동자를 파견했다"며 "그 수는 1만5천명 정도로 추산되며, 쿠웨이트와 카타르가 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함.

2017. 3. 28.

■ “北, 지난달 中에 석탄 1천억원어치 수출 …작년대비 43%↑”(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월 중국에 수출한 석탄이 1천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 "지난 2월 북한은 중국에 석탄 약 9천700만 달러(한화 1천78억원) 어치를 수출했다"고 보도함.
-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3% 증가한 액수라고 VOA는 설명함.

2017. 3. 30.

■ “北 노동자 100여명, 러시아 경기장 건설현장서 노역”(연합뉴스)

-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100여 명이 지난해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월드컵 경기장 건설현장에 투입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30일 노르웨이 잡지를 인용해 보도함.
- 잡지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형 아파트 건설업체인 '달피테르스트로지'는 작년 8월 말 북한 노동자 60명을 경기장 건설현장에 파견했고, 이들은 경기장 외관 치장 공사를 맡았음.
- 곧이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호화 아파트 건설업체인 '스벤 선즈'도 북한 노동자 50명을 경기장 건설에 투입했으며 이들은 페인트 작업을 맡았음.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3. 26.

■ “北, ‘석유수입 통로’ 남포항 송유시설 확장”(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대북 석유봉쇄를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은 남포항 인근의 송유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밝힘.
- RFA는 북한의 석유 수입 통로인 남포항 인근 모습을 미국 상업위성이 지난 2015년 10월 4일과 1년 후인 2016년 10월 4일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함.
- RFA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석유를 수입·저장하는 남포항 인근 수상송유시설(Oil Terminal)에서 1개였던 부두를 2개로 늘리는 증설 공사를 2015년 10월

이후 진행함.

2017. 3. 27.

■ **北,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대학 신설(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산림과학 부문의 종합적인 인재육성 기지를 창설할 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이 대학을 김일성종합대학에 내오도록 하여 주시었으며 대학창설 사업이 최단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다"고 보도함.
- 이어 "석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산림과학 부문의 30여 개 과목이 개척되고 그에 따르는 교수안들이 작성되었다"고 설명함.
- 또 설립 목적에 대해 "나라의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관리, 종합적 리용(이용)을 위한 사업을 앞장에서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키워낼 김일성종합대학 산림과학 대학"이라고 소개함.

2017. 3. 28.

■ **“北, 中 오기는 화물트럭에 보위원 동승… 南물품 유입 감시”(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무역업무로 중국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트럭에 보위부 요원을 동승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28일 보도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작년 말부터 갑자기 각 무역회사 화물차에 (국가) 보위원이 같이 탄다고 들었다"며 이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한국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국내외에서 북한 간부나 주민 감시 등의 업무를 주로 해왔으나 최근에는 중국으로 가는 화물트럭에 동승해 운전기사 감시는 물론 화물칸과 운전석 밑까지 샅샅이 검색하고 있음.

2017. 3. 29.

■ **北 “올해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실시”…1년 지연(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새 학기를 사흘 앞둔 29일 1면에 게재한 '우리 당의 후대사랑, 교육중시 사상이 안아온 자랑스런 성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보도함.

- 신문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는 단순히 학제를 1년 늘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교육 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이라고 설명함.
- 북한은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통해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려 기존 11년제를 12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함.

### 2017. 3. 31.

#### ■ “北, 김일성 생일 앞두고 주민 이동 통제 강화”(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내달 15일 김일성 생일(북한 태양절로 명명)을 앞두고 북·중 국경 지역에만 적용하던 이동통제 조치를 최근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RFA에 "4월 1일부터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금지한다는 인민보안성 지시가 전국에 하달됐다"며 "출장, 대사 등의 명목으로 외지에 나온 사람들은 3월 말까지 무조건 거주지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함.
- 소식통은 "4월 5일은 한식으로 사망한 부모나 조상들에게 제를 올리는 날인데도 인민보안성이 이동을 금지했다"며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앞두고 예상되는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고 발언함.

## 나. 시장관련

### 2017. 3. 29.

#### ■ “북한 내 종합시장 404개…종사자 110만명”(연합뉴스)

-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허가돼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세금을 내는 종합시장이 40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시장은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2017년 3월호'에 실린 '북한 종합시장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 1990년대부터 크게 증가한 북한 내 종합시장의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힘.
- 도별 평균 시장개수는 40.5개로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를 포함한 평안남도 지역이 116개로 가장 많고, 양강도가 17개로 가장 적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7. 3. 26.

### ■ 北, 완공 앞둔 '신도시' 여명거리 대대적 홍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3면 전체에 여명거리 공사 상황을 전하고, "대부분 건축물의 내외부 공사가 끝난 려명거리(여명거리) 건설장에서 매일, 매 시각 최후돌격전의 승전 포성이 울려 퍼진다"며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제아무리 야만적인 초강경 제재를 가해도 더 무섭게 돌진하며 기어이 승리를 안아오고야 마는 조선의 우렁찬 발걸음소리"라고 밝힘.
-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김정은이 최근 새벽에 여명거리 건설 현장을 찾았다면서 "그 시각에 온 나라의 인민이 단잠에 들어있지 않았던가. 아마도 황홀한 려명거리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주인들조차 머지않아 받아들게 될 행복을 그려보며 꿈나라에 있었을 것"이라고 밝힘.
- 대외 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령도자(영도자)와 인민이 일심 단결된 불가항력적 힘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일떠서는(일어서는) 려명거리는 공화국은 일단 마음먹은 것은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떨치며 머지않아 화려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힘.

### ■ 北 연구소, 오수 이용 전력 및 식물 영양액 생산 공정 도입(연합뉴스)

- 북한 국가과학원 자연 에너르기연구소에서 도시생활 오수를 이용해 전력 및 식물 영양액을 생산하는 공정을 함흥시 사포구역의 남새온실농장에 도입했다고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26일 밝힘.

2017. 3. 27.

### ■ 북한, 신형 무궤도 전동차 개발...“축전지도 이용”(연합뉴스)

- 북한이 축전지도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형 무궤도전차(트롤리 버스)를 개발해 시운전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이날 "최근 수도여객운수국에서 자체의 힘으로 100% 국산화된 새로

운 무궤도전차를 만들어냈다"며 "새로운 무궤도전차는 축전지를 동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선로(트롤리션)의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2중 전원체계가 도입된 무궤도전차"라고 설명함.

- 신문은 신형 무궤도전차 개발로 "여객 운수 부문에서 큰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됐다"고 주장함.

#### ■ 北, 4월 신학기 준비 한창...기술高 첫 개교(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26일 "새 학년도를 앞두고 평양시 교수자료 전시회가 교원(교사) 재교육강습소에서 진행됐다"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수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 교편물 등이 전시됐다고 보도함.
- 방송은 개학 전에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참고서, 교복과 학용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이미 소학교 신입생들에게 공급할 교복 생산을 끝냈고 신발과 학용품 생산도 '마감 단계'라고 보도함.
-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16일 "공화국에서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 새 학년부터 전국 각지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도함.

#### ■ 평양기계종합대학 연구진, 소출력 인버터 자체 개발(연합뉴스)

- 평양기계종합대학 연구진들이 국산화된 소출력 인버터를 자체 개발했다고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27일 보도함.
- "낮은 전압 주파수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뿐 아니라 관리 운영에 편리하고 제작 원가에 있어서나 성능에 있어서 수입산 제품을 능가한다"고 제품의 성능을 설명함.

#### ■ 김일성종합대학, 첨단 전방향 어군(魚群) 탐지기 개발(연합뉴스)

-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전자재료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첨단 전방향 어군(魚群)탐지기를 연구 개발했다고 조선의 오늘이 27일 보도함.

### 2017. 3. 28.

#### ■ 北 택시기사 요주의...“외국인 동태 파악 정보원으로 활용”(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택시 기사를 외국인 동태를 파악하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나선경제특구를 자주 방문하는 한 중국 기업인은 RFA에 "북한의 택시 운전사들은

자신의 차에 태운 외국인들의 동선과 언행을 파악해서 그날그날 보안 당국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함.

- 평양과 달리 외국인한테 안내원이 따라붙지 않는 나선 등에서는 택시 기사가 안내원과 정보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전해짐.

#### ■ 北 신문 “옥류아동병원, 20년간 3천명 심장 수술”(연합뉴스)

- 북한의 대표적 어린이전문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이 최근 20년 동안 3천여 명의 어린이에게 심장 수술을 했다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이날 한 면(4면) 전체를 할애해 '만리마시대의 참된 보건 일꾼(일꾼)'이라고 옥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를 소개하면서 "근 20년간 3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새 심장, 새 생명을 부여했다"고 보도함.
- 또 "자본주의 나라의 한 의료 일꾼은 옥류아동병원의 심장혈관외과를 돌아보고 이처럼 최고급의 의료설비로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준다니 리해(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커다란 혜택을 귀국의 인민들이 다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고 보도함.

2017. 3. 29.

#### ■ 北 ‘축구영재 양성소’ 평양국제축구학교 첫 졸업생 배출(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체육강국' 구상에 따라 설립된 축구영재 양성 기지인 평양국제축구학교가 첫 졸업생을 배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평양국제축구학교 제1기 졸업식이 29일에 진행되었다"고 이날 보도함.
- 졸업식에는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축하 발언을 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2017. 3. 30.

#### ■ “북한내 불법의료행위 성행…낙태수술 1건당 5만원”(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불법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RFA는 북한에서 불법 낙태수술이나 출산이 돈을 받은 의사에 의해 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불법 낙태수술은 산부인과 의사와 비밀리에 흥정해야 하는데 중국 돈 150~300위안(한화 2만5천~5만원)까지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보도함.

#### ■ 평양 신발공장에 김정은 현지지도 표식비 건립(연합뉴스)

- 평양 류원신발공장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기념하기 위한 표식비가 건립됐다고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이 30일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과 함께 김정은의 2015년 1월 현지지도를 기념하는 표식비가 공장에 건립돼 이날 준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함.
- 방송은 "몸소 공장을 찾으시고 (중략)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현지지도 표식비도 (모자이크 작품과) 함께 건립했다"고 설명함.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7. 3. 25.

#### ■ 北 고위 외교관 잇단 대미비난 여론전…도발 명분쌓기 해석(연합뉴스)

- 북한은 박명호 주(駐)중국 대사관 공사의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신호탄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러시아, 스위스, 홍콩 등 주요국 주재 공관 관계자들의 회견과 외신 인터뷰 등을 잇달아 가짐.
- 박명호 공사는 미국·일본·중국 언론을 상대로 개최된 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날 김형준 주러시아 북한 대사는 "전략적 핵전력을 중추로 한 자체 억제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함.
- 장성철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들이 어둠 속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바마 정부가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함.

#### ■ 美, 北핵실험 가능성에 "위협 맞서 모든 역량 사용할 준비"(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의소리(VOA)와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계속해서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함.

- 그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함.
- 미국 CNN방송은 이날 익명의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포착됐다"면서 "북한이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함.

### 2017. 3. 26.

#### ■ 北 매체, '미군 표적' 사격 훈련 연출 동영상 공개(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26일 '명중탄 - 우리는 주체 조선의 국방체육단 사격선수들'이라는 제목의 2분 6초 분량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 동영상은 선수들이 과녁을 향해 권총 또는 소총의 총구를 겨누는 채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등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을 담음.
- 과녁과 훈련 중인 미군을 오버랩해 선수들이 과녁을 명중하면 미군을 쏘는 것 같은 효과를 냄.

### 2017. 3. 27.

#### ■ 北 "트럼프 대북정책, 오바마 '전략적 인내' 답습"(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그릇된 정책이 초래할 것은 과멸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관련 행보와 발언 등을 거론하며 "미국 정부 안에서 거론되는 내용을 보면 오바마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과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없다"고 평가함.
- 이어 "있다면 남조선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안 등을 추가로 더 넣으려 할 뿐"이라고 주장함.
- 아울러 신문은 이날 정세해설에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아시아 순방에 대해 "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취약성과 무능함만을 보여준 외교 행각"이라고 깎아내렸고, 다른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수치와 망신도 모르고 추태를 부렸다"고 주장함.

2017. 3. 28.

■ 미국, 北 '선제적 특수작전' 위협에 "어떤 공격도 막아낼 것"(연합뉴스)

- 애나 리치-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 전화통화에 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철통 같다"며 "어떤 공격 혹은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함.
- 리치-앨런 대변인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수개월 간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고 유엔 회원국들 역시 참관단을 파견한다"며 "이와 달리 북한은 자체 군사훈련에 국제 감시단을 초청하지 않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함.

■ 北 "핵보유, 도발 아냐"...美 선제타격론에 '견제구'(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흑백을 전도하는 북 도발위협설의 모략적 진상을 평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침략과 전쟁에 앞서 상대측의 '도발'과 '위협'을 날조해내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공' 가능성을 주장함.
- 노동신문은 7천 자가 넘는 논평원의 글에서 "이것(도발)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 보유와 군력 강화 조치들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라며 "끊임없는 핵 위협과 도발로 우리를 핵 억제력 보유에로 떠민 미국이 북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북침을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는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에 지뢰방호장갑차(MRAP)를 배치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이 북침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함.

■ 北 매체 "美당국자들 철부지 높음...대결정책 버려야"(연합뉴스)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우리의 군사적 위력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문제는 미국의 기업가 출신 당국자들이 그 받은(알은) 정치 감각을 가지고 우리를 놀래워 보려고 철부지 아이들처럼 분수없이

- 놓아두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군사적 압력과 위협 공갈이 약자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강자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이 미국에 참혹한 후과를 몰아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함.
  - 이어 "트럼프 행정부 대에 와서 미국이 종말의 시각을 맞이했다는 역사의 낙인이 찍혀지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자기의 구시대적인 대결정책을 대담하게 버려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비난 美의원에 “선전포고격 도발…겉맞은 대응”(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미 상원의원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과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 상원 군사위원장의 발언 등을 거론하며 "미 국회의 강경 보수 의원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 드는 망발을 취쳐댄(지껄인)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에 대한 최대의 적대시 표현이며 선전포고에 맞먹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함.
- 이어 자신들은 최고 존엄(김정은)을 '제1생명'으로 여긴다며 "실제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도 이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크루즈·매케인 의원에 대해 "이 자들은 자기의 짧은 혀를 잘못 놀린 대가가 미국에 어떤 치명적 후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함.

2017. 3. 29.

■ **美 국무부 “北 미사일 엔진시험 대가 치르게 해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최근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을 한 북한에 국제사회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VOA에 "모든 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채널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북한과 그 조력자에 추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발언함.
-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달라"고 발언함.

■ 北 “우리 승리는 과학…美제재는 ‘행차 뒤 나팔격’”(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참패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이 세상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처럼 그토록 뿌리 깊고 포악무도하며 집요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하지만 자력자강으로 북한의 국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적대세력들의 촘촘한 제재와 봉쇄의 그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장엄한 핵 뇌성이 연속적으로 지구를 뒤흔들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시간도 정의도 우리의 편이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라며 "(미국이) 행차 뒤 나팔(나팔) 격인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며 제재와 압박소동에 광분한다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는 비극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2017. 3. 30.

■ 北 “한반도서 전쟁 터지면 美책임…섬멸의 포문 열었다”(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무단히 강화해 오다 못해 수많은 핵 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 수단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6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은 "정세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특대형 도발자들을 후려치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전략적 중심(縱深·전방에서 후방에 이르는 작전범위)이 깊지 않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미국의 첨단 핵 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 부대들의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막고 자기를 지키는 길은 단호한 선제공격뿐"이라고 주장함.

■ 美 국무부, ‘대북선제공격 비현실적’ 지적에 “모든 옵션 고려”(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대북 선제공격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대북 선제 군사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미국은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발언함.
-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나. 북·중 관계

2017. 3. 27.

### ■ 北 도발에도 경험가속하는 中, 전세기취항 이어 국경무역 '균불'(연합뉴스)

- 27일 랴오닝(遼寧)성 단둥 중조변민 호시무역구(이하 호시무역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평양 소재 중국대사관의 저우창팅(周長亭) 참사관 일행이 호시무역구를 방문함.
- 저우 참사관은 좌담회를 열어 리젠쓰(李建思) 단둥 해관(세관 격) 부관장과 호시무역구 책임자로부터 북한과의 무역 때 세관의 업무는 물론 무역구 전체 사업방향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호시무역구측은 "중한 양국 변방주민의 국경무역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무역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전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경무역 참여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함.
- 또한 북중 접경의 단둥과 북한 평양을 잇는 전세기가 이달 28일부터 운항될 예정임.

2017. 3. 28.

### ■ 北 매체 "평양-단둥 항공노선 취항...관광편의 도모"(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평양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간 항공편 개설 사실을 소개하며 관광 편의 개선을 강조함.
- 중앙통신은 28일 기사에서 "평양-단둥(단둥) 비행기 항로가 개설되었다"며 "여객들을 태운 항로의 첫 비행기가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함.
- 이어 "평양-단둥 비행기 항로의 개설은 조선(북한)에 대한 관광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 中 매체 "첫 단둥발 전세기 탑승 중국인들 평양서 환대"(연합뉴스)

- 28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중국인들이 북측의 환대를 받았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함.
- 신화통신은 이날 단둥-평양 전세기 노선이 처음으로 개통돼 50여 명의 승객이

- 고려항공을 통해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이들 승객의 대부분은 중국인 관광객과 사업가들이었으며 평양 공항 직원들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통신은 보도함.

### 2017. 3. 29.

#### ■ “北 김일성 3부자 평론밀라”…中, 단둥-평양전세기 주의사항 당부(연합뉴스)

- 29일 북중접경 여행업계에 따르면 단둥-평양 전세기 탑승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사들은 전날 자국 탑승객들에게 '조선(북한)여행 주의사항'을 배포함.
- 연합뉴스가 입수한 주의사항을 보면 우선 "여행 기간 조선의 정치·경제상황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김일성 주석·김정일 서기·김정은 원수에 대해 평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주석 동상 앞에 헌화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 숙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지도자 동상의 포즈를 모방해서 사진을 찍어선 안된다"고 설명함.
- 이어 "여행기간 북한의 낙후함과 아름답지 못한 경물(景物·경치와 물건)을 촬영해서는 안되며 독단적인 개인활동을 삼가라"며 "친척·친구 방문이나 일반 주민 집 방문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으며, 북중 해관(세관) 규정에 따라 북한 입국 때 노트북, 망원경, MP3, 북한화폐 등은 휴대금지한다고 경고함.

### 2017. 3. 31.

#### ■ 中 단둥-北 평양 전세기 5월까지 운항…모객난에 4개월 운항지연(연합뉴스)

- 31일 북중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단둥-평양 전세기는 애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항하도록 중국 항공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나, 모객에 어려움을 겪어 운항 개시 시점이 녀달 지연된 것으로 확인됨.
- 28일 단둥발 평양행 첫 전세기 탑승객 50여 명도 일반 관광객보다는 북중 국경관광의 수익성을 알아보려는 중국 여행사 대표들이었음.
- 이런 모객난 탓에 북한 고려항공은 중형 여객기 대신 좌석수가 73석에 불과한 안토노프 AN48 기종을 투입함.

## 다. 북·일 관계

### 2017. 3. 28.

■ **日, 북핵·미사일 압박 계속한다…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대북제재가 다음달 13일 만료함에 따라 이를 2년간 연장하기로 함.
-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내달 기한이 만료되는 독자 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임.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울들어서도 지난 2월과 지난 6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부가 일본 서쪽 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하는 등 도발이 계속돼 독자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함.

## 라. 북·러 관계

2017. 3. 25.

■ **“北 지도자 사진 지폐 훼손 말라”…러시아, 北관광 행동지침(연합뉴스)**

- 2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을 관광하는 자국민들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 격인 주의사항을 발표함.
- 러시아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담긴 책이나 잡지, 신문 등 출판물이나 지폐를 손상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말이나 행동으로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모욕하지 말도록 권고함.
- 또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걸려 있는 곳을 촬영할 때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잘리지 않도록 하고, 모두 사진 안에 다 들어가도록 찍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건물이나 거리에 붙어 있는 선전화나 선전구호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2017. 3. 27.

■ **러, 대북관계 급속 강화·중국 빠진 자리 메우나(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이 얼마 전 평양을 방문, 북한 노동자 수용 한도 확대를 협의한 것을 비롯, 러시아 국영 철도대표단도 지난 1월 말 평양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철도망 확충문제를 협의함.
-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설날 인사장을 보낸 나라 이름을 열거하면서 러시아를 맨 먼저 소개함.

■ **“러 공항서 3만달러 넘는 외화 밀반출하려던 북한인 체포”(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을 통해 3만 달러 이상의 거액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체포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북한인은 블라디보스토크-평양 노선을 운항하는 북한 항공편을 통해 외화를 본국으로 가져가려 한 것으로 추정됨.
- 공보실은 이 북한인이 이전에도 공항 세관을 통해 외화를 갖고 나간 적이 있으며 그때는 세관 신고를 했었다며 이번엔 신고 없이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함.

2017. 3. 31.

■ **“북·러, 평양 소련군 기념탑 보수”...관계강화 일환(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전통적 친선의 상징인 평양의 '해방탑'을 전면 보수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인용해 보도함.
- 평양 모란봉에 있는 해방탑의 보수 공사는 5월 9일쯤 끝날 예정이며,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공동으로 맡고 있음.
- 러시아 대사관은 "해방 직후 세워져 낡은 해방탑은 1985년 전면 보수한 데 이어 30년 만에 재보수 중"이라고 설명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3. 25.

■ **北 신문, “유엔 대북 인권결의는 정치 사기극”(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늘어놓는 인권 타령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노골적으로) 간섭하여 정권교체, 제도전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법"이라며 "오늘 미제의 인권 소동의 주되는 화살은 우리 공화국에 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은 유엔 무대에서까지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총동원하여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을 날조해 내면서 존엄 높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정의를 부정의로 짓누르고 진리를 허위로 가리워 보려는 파렴치한 정치사기극이며 진보와 반동을 뒤바꾸어놓은 미국식 악의 교리"라고 강조함.
- 유엔 인권이사회는 24일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근거해 국제사회가 책임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 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음.

2017. 3. 27.

■ 말레이 언론, “김정남 시신 넘기고 북한인 용의자도 출국 보장”(연합뉴스)

-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내 억류 자국민 9명을 전원 귀환하는 조건으로 김정남의 시신을 북측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함.
- 말레이시아 중문지인 중국보(中國報)는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에 은신해 있는 김정남 암살 용의자 3명의 출국도 함께 보장됐다고 보도함.
- 중국보는 전날 오후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국립 법의학연구소(IPKN)에서 반출돼 시내 장례시설로 옮겨졌던 김정남의 시신이 화장되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이날 오후 북측 당국자들에게 인계될 것이라고 보도함.

2017. 3. 28.

■ 말레이 보건장관, “김정남 시신 아직 말레이에…친족 접촉 없어”(연합뉴스)

- 28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브라마니암 사타시람 말레이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시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협의할 김정남 친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확인함.
- 그는 "시신은 (현재)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에 있다"면서 "완전한 해법이 도출될 때까지 시신을 보관할 것"이라고 설명함.
-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표준 절차에 따라 김정남 시신은 화장(火葬)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발언함.

2017. 3. 29.

■ 말레이 언론, “김정남 시신 北에 인도될듯…30일 공항 이송 전망”(연합뉴스)

- 김정남의 시신이 조만간 북한에 인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신이 30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으로 이송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
- 말레이시아 중문어 매체인 동방일보(東方日報)는 29일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남의 시신이 30일 아침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국립법의학연구소(IPFN)에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화물운송센터로 옮겨진 뒤 해외로 반출될 예정이라고 전함.
- 김정남 시신의 행선지와 관련해선 현지 언론 보도가 엇갈려, 동방일보는 김정남이 피살되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중국령 마카오로 시신이 옮겨질 것이라고 한

반면 중국보는 김정남의 시신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전함.

■ **말레이, 北연계 자국기업 수사…‘인질외교 협상’ 변수되나(연합뉴스)**

-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말레이 경찰은 북한이 자국 기업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함.
- 말레이 경찰은 특히 말레이시아코리아파트너스(MKP)를 집중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
- MKP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아프리카에서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앙골라, 잠비아에서 지난 십 년간 수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바 있음.

■ **말레이, 입항 北 화물선 유엔결의안 위반 여부 조사(연합뉴스)**

- 석탄을 싣고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북한 선박이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유엔 결의안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함.
- 이 통신은 무연탄 6천300t을 실은 채 이날 말레이 반도 서부 폐낭항에 들어서려던 북한 선적 화물선 '금야(KUMYA)호'의 입항이 한때 중단됐다고 보도함.
- 이에 대해 줄키플리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청(MMEA) 부청장은 "유엔 결의안 위반 가능성 때문에 입항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함.

2017. 3. 30.

■ **‘고립되는 北’…좌파집권 에콰도르도 비자면제국서 제외(연합뉴스)**

- 에콰도르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입국비자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교부 장관 명령서 제20호를 관보에 게재함.
-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 국적자가 비자 없이 에콰도르에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국비자를 받아야 함.
- 에콰도르의 조치로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38개국으로 줄게 됨.

■ **말레이 총리 “北과 매우 민감한 협상 중…참고 기다려달라”(연합뉴스)**

-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김정남 암살과 북한내 억류 자국민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매우 민감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고 30일 말레이 국영 베르나마통신이 보도함.

- 나집 총리는 전날 집권여당연합 국민전선(BN) 최고위원회 주재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참을성을 가져달라"고 발언함.
- 그는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평양에 있는 말레이시아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치를 준수하는 주권국으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이미지를 지켜내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발언함.

#### ■ 말레이 언론 “北대사관 은신 현광성·김옥일 오늘 귀국가능성”(연합뉴스)

- 말레이 현지 중국어매체인 중국보(中國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김정남 시신을 보관해 온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국립법의학연구소(IPFN)에서 은회색 다목적 차량이 시신 한 구를 운송해 나가는 장면이 목격됨.
-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에 은신해온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현광성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옥일이 이날 오후 대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귀국 가능성도 제기됨.
- 중국보는 김정남의 시신이 실릴 것으로 알려진 MH360편 탑승자 명단에 현광성과 김옥일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전함.

#### ■ 싱가포르 언론 “北역류 말레이인들, 31일 아침 귀국할 듯”(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돼 있던 말레이시아인 9명이 31일 아침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싱가포르 유력매체 채널뉴스아시아가 30일 보도함.
- 대신 말레이시아 측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이날 오후 6시발 베이징행 말레이시아 항공 MH360편에 실어 인도한 것으로 알려짐.

#### ■ 말레이 총리 “김정남 시신 北에 보내고 말레이인들 송환 합의”(연합뉴스)

- 나집 총리는 30일 저녁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사망자의 부검이 완료됐고, 시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가족의 편지가 접수됨에 따라 검시관이 시신 인도를 허가했다"고 밝힘.
- 그는 편지를 보낸 가족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제 북한인들이 말레이시아를 떠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발언함.
- 나집 총리는 북한에 억류돼 있던 말레이시아인 9명이 평양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힘.

■ 북·말레이, 김정남 시신 '北에 있는 가족'에 송환 합의(연합뉴스)

-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6개 항의 '공동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사망자(김정남)의 가족으로부터 시신과 관련한 모든 문건들을 제출하였으므로 말레이시아는 시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사망자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도함.
- 양국은 최근 양측 대표단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사망'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고 이같이 보도함.
-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쌍방은 두 나라 국민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며 자국령 내에서 그들의 안전을 담보하기로 합의하였다"고도 보도함.

2017. 3. 31.

■ 김정남 시신 北송환한 말레이, 北근로자 50명 추방·불법체류 혐의(연합뉴스)

- 김정남 암살사건 용의자들과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넘긴 말레이시아가 자국 내 북한 근로자 추방에 나섰다고 현지 일간 뉴 스트레이트타임스가 31일 보도함.
- 현지소식통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사라왁주(州)에서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체류하다 적발된 북한근로자 50명에 대한 추방조치를 진행 중임.
- 이번에 추방되는 근로자들은 김정남 암살사건 처리 과정에서 북한과 외교갈등을 겪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한 자들로, 주로 특수 기술을 가진 근로자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보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3. 26.

■ “풍계리 북쪽 갭도서 차량 4~5대 포착…핵실험 준비용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갭도 입구에서 차량 또는 트레일러로 보이는 4~5대의 물체가 포착됐으며, 이는 핵 실험 준비용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5일(현지시간) 정보분석업체 올로스 애널리시스의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과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잭 류 연구원의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힘.

- 38노스는 이들 차량이 핵실험 준비용 차량일 경우 관련 장치 또는 심지어 핵폭탄 반입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함.

### 2017. 3. 28.

#### ■ 美 CNN “北, 지난주 또 미사일 엔진시험…결국 ICBM에 적용될 듯”(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4일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추가로 실시했다고 CNN이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리 2명을 인용해 보도함.
-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최근 몇 주 사이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을 총 세 번 했다고 설명함.
- 미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 분석작업 결과 북한이 분출시험을 했다면서 선보인 신형 고출력 엔진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했다고 발언함.

### 2017. 3. 29.

#### ■ 美 38노스 “北 핵실험 준비 유력…통신선·관측장비 가설 정황”(연합뉴스)

-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유력한 복수의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싱크탱크가 28일(현지시간) 주장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지난 25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힘.
- 38노스는 "이런 복합적인 변수들은 장비 가설을 포함해 핵실험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력하게 암시한다"고 주장함.

### 2017. 3. 30.

#### ■ “北 풍계리 핵실험장에 70~100명 도열, 핵실험 감행 메시지”(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28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핵실험장 주(主)지원단지 안에 70~1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형을 이뤄 모여있다고 보도함.
- 주지원단지의 이런 모습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이 있기 한 달 전쯤에 목격된 것과 유사하다고 38노스는 설명함.
- 38노스는 "3차 핵실험 전인 2013년 1월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함.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3.25		美하원 외교위원장 "사드, 한반도 보호 위해 불가피"(연합뉴스)
	3.28	외교부, 소녀상 철거불가 美대법원 판결에 '노코멘트'(연합뉴스)	
	3.29	韓-인도 '2+2' 연내 창설...중국전체 구도에 한걸음 더(연합뉴스)	
	3.30	한미, 北 6차 핵실험 강행하면 대북 원유공급 제한 추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3.28	정부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발 디도스 공격.. 피해없어"(연합뉴스)	
		외교부 "중국내 태극기 훼손 엄중...즉각 시정 요구"(연합뉴스)	
	3.30		중국방부 "사드 반대, 절대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경고(종합)(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3.31		日 '독도 일본땅' 왜곡교육 의무화 학습지도요령 끝내 채택(연합뉴스)
		외교부, 日 교과서지침 확정에 일본대사대리 불러 항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3.28		러 외무, 사드배치·한미연합훈련 비난... "협상으로 해결해야"(연합뉴스)
	3.29		주한 러시아대사 "6자회담 재개돼야... 사드 배치 부정적"(종합)(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3.25		中, 주일미군기지 모의과녁 훈련... "일본에도 사드배치 필요"(연합뉴스)
	3.27	美, 中기업과 개인 등 추가 제재... 北생필무역도(연합뉴스)	
	3.28		中, 美하원 '사드보복' 규탄 결의안에 "문제해결에 도움 안돼"(연합뉴스)
			中, 대북제재 2321호 이행보고서에도 '사드 반대'(연합뉴스)
	3.31		北연관 기업제재 美 '세컨더리 보이콧'에 中 조직적 반발(연합뉴스)
		시진핑, '통상 압박' 美에 선물 보따리?... 25억불 지역투자 협의(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내주 마라라고서 첫 대화... 백악관·中 공식발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3.25		日정부, 美법원에 "캘리포니아소녀상 철거해야" 이례적 의견서(연합뉴스)

	3.26		日, 美와 2+2 회담서 "미사일 방위 증강하겠다" 제안 방침(연합뉴스)
	3.27		日정부, 오키나와 지사 '美기지 이전공사 철회맨' 손배청구(연합뉴스)
	3.28		日관방, 美대법원 소녀상 소송 패소에 '유감'...우회적 불만표시(연합뉴스)
	3.29		日, 자위대 '평시 美함정 방어' 첫 실시...안보법 본격 적용(연합뉴스)
		美日, 동중국해에서 또 합동 훈련...中·北 견제(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미국</b>	<b>러시아</b>
미러 관계	3.26	美 러 기업 8곳 제재..."이란·北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연합뉴스)	
	3.28	美 "러시아, 평화로운反正부 시위자들 즉각 석방해야"(연합뉴스)	
	3.31		푸틴, 美에 "북극권 개발 협력하자"...러 기업 제재해제 희망 (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일본</b>
중일 관계	3.27	中외교부, 日차관급 대만방문에 '발끈'..."문제 심각성 인식하라"(연합뉴스)	
	3.28		中해경선, 센카쿠 주변 일본 영해 침입...日, 中에 항의(연합뉴스)
	3.29		日아베 "대만과 관계강화해야"...고위 관료 방문이어 또 中 '자극'(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러시아</b>
중러 관계	3.29	中 외교부 "러시아 사드 반대 주장 타당하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3.30		러시아, 영유권 분쟁 북방영토 軍요새 화...日 '발만 동동'(연합뉴스)
	3.31		러시아, 영유권 분쟁 북방영토 軍요새 화...日 '발만 동동'(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7. 3. 25.

##### ■ 美하원 외교위원장 “사드, 한반도 보호 위해 불가피”(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미국은 중국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미 하원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만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의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 중지 촉구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함.

2017. 3. 28.

##### ■ 외교부, 소녀상 철거불가 美대법원 판결에 ‘노코멘트’(연합뉴스)

- 외교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못하게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음.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계 극우단체의 상고 신청을 각하한 미 연방 대법원의 27일(현지시간) 결정에 대해 "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음.
- 조 대변인의 이런 입장은 제3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성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2017. 3. 29.

■ **韓-인도 '2+2' 연내 창설...중국견제 구도에 한걸음 더(연합뉴스)**

- 정부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의 인도 방문 기간(27~29일) 한-인도 외교·국방 차관 연석회의(일명 2+2)를 연내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구도 쪽으로 한 걸음 더 진입하는 의미가 있어 보임.
-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대 한국 보복 조치가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미중 전략경쟁 속에 자리한 한국 외교·안보의 앞길에 함의가 없지 않다는 분석임.
- 외교와 국방 분야의 고위 관리가 나란히 머리를 맞대는 2+2는 보통 우호관계와 전략적 이익 및 기본 가치의 공유 등 조건을 충족한 나라와 가동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 호주 단 2개국과 장관급 2+2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관급 2+2는 인도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17. 3. 30.

■ **한미, 北 6차 핵실험 강행하면 대북 원유공급 제한 추진(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원유 수출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30일 전해짐.
- 북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핵무기 실전배치에서 그 상징성이 특별한 만큼 안보리 제재 결의에 강력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대북 원유 수출 제한을 추가 핵실험시 신규 제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짐.
-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6차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 공조하에 안보리 및 독자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음.

## 나. 한·중 관계

2017. 3. 28.

■ **정부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발 디도스 공격.. 피해없어"(연합뉴스)**

- 정부는 28일 최근 중국 해커 조직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한국의

- 기업 등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중국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시도가 수차 간헐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힘.
- 조 대변인은 "외교부는 긴급 대응반을 구성하고 본부와 중국 전역에 걸쳐 있는 우리 공관과 유관 기관에 상황 및 대응 요령을 전파했으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 그는 "우리 정부로서는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함.

#### ■ 외교부 “중국내 태극기 훼손 엄중·즉각 시정 요구”(연합뉴스)

- 외교부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일부 중국인이 태극기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측에 여러 계기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함.
- 조 대변인은 "중국 측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관련자 조사 및 훼손 태극기 수거 등 관련 조치를 취했다"며 "외교부는 중국 전역의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공관에 주의를 환기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적극 협의 및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덧붙임.

2017. 3. 30.

#### ■ 중국방부 “사드 반대, 절대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경고(종합)(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절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경고하고 나서며,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겨냥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해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논평을 피하면서 중국군이 정상적인 군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함.
- 사드 발사대 2대와 부분 장비가 이미 주한 미국기지에 들어왔고, 4월께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유 역시 이미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함.

## 다. 한·일 관계

2017. 3. 31.

- **日 ‘독도 일본땅’ 왜곡교육 의무화 학습지도요령 끝내 채택(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31일 초·중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함.
  - 지난주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고교 사회과 전 과목에서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한 데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사상 처음으로 이를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함.
  -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도 한층 악화할 것으로 관측됨.
  
- **외교부, 日 교과서지침 확정에 일본대사대리 불러 항의(연합뉴스)**
  - 외교부는 31일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기술힌도록 한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확정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함.
  -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함.
  - 스즈키 총괄공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이 차관보를 만나러 올라감.

## 라. 한·러 관계

2017. 3. 28.

- **러 외무, 사드배치·한미연합훈련 비난…“협상으로 해결해야”(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이 자국의 전략적 군사력을 침해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거둑 반대 입장을 밝히며,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밖에 없다고 거둑 강조함.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게재된 자국 시사주간지 '아르구멘티 이 팩티'(논증과 사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함.

- 라브로프는 먼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한이 줄기차게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러시아는 북한의 위험한 군사활동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들을 지지했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 대북 제재도 지지해 왔다"고 상기시킴.

2017. 3. 29.

■ **주한 러시아대사 "6자회담 재개돼야...사드 배치 부정적"(종합)(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29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안보 체제 형성을 위해 관심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함.
- 티모닌 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동창회가 주최한 '송강포럼' 행사 강연에서 "동북아 모든 당사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함.
- 티모닌 대사는 현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웃 나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핵·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동시에 평양에 대한 공격을 연습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서 북한과 한미 모두가 긴장 고조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7. 3. 25.

■ **中, 주일미군기지 모의과녁 훈련...“일본에도 사드배치 필요”(연합뉴스)**

- 중국군이 일본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를 타격하는 모의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만 중국시보는 25일 중국군이 서부 고비사막 지역에 일본 요코스카(横須賀)항에 주둔한 미해군 7함대를 본뜬 미사일 과녁을 설치해놓고 있다고 미군 기관지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를 인용해 보도함.
- 이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토머스 슈가르트 미해군 예비역 소령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확인된 만큼 일본에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슈가르트 연구원은 구글 어스 위성사진을 통해 요코스카항의 실물 모습과 중국군이 설치한 모의 과녁 시설물을 비교하며 이 훈련장의 미사일 목표물이 요코스카항 지형을 그대로 본떴다고 전하였음.

■ 美, 中기업과 개인 등 추가 제재...北생필무역도(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 등 총 30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
- 국무부는 성명에서 "지난 21일 자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면서 "이들은 이란 등지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감한 품목 등을 이전했고, 또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수출입 통제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을 건네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관련 품목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함.
- 국무부가 성명에서 공개한 11개 기업과 개인 제재 명단을 보면 '시노텍 탄소-흑연 회사'를 비롯한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총 9개로 가장 많고 북한과 이라크에미리트가 각각 1개씩임.

2017. 3. 27.

■ 中, 美하원 '사드보복' 규탄 결의안에 "문제해결에 도움 안돼"(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에서 사드보복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결의안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건설적인 의의도 없다"고 강력한 어조로 비판함.
- 화 대변인은 "미 의원 몇몇이 제안한 '규탄'이란 단어를 특별히 싫어한다"며 "중국의 북핵과 사드 문제에 관한 입장은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사드에 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함.

2017. 3. 28.

■ 中, 대북제재 2321호 이행보고서에도 '사드 반대'(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와 6자회담 재개를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중국은 지난 15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는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 결의도 한반도·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결법"이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함.
- 보고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2321호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에 대한 포괄적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 北연관 기업제재 美 '세컨더리 보이콧'에 中 조직적 반발(연합뉴스)

- '북한과 이란 제재법' 위반으로 중국 기업들이 추가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음.
- 미국이 북한·이란과 연관된 중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을 현실화하자 중국 정부와 함께 기업들까지 나서 미국에 맞서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2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영문판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에 오른 선전 야타이다 하이테크 관계자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란에 수출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이나 유리섬유 같은 기술수준이 낮은 상품으로 대이란 수출금지품목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함.

2017. 3. 31.

#### ■ 시진핑, '통상 압박' 美에 선물 보따리?...25억불 지역투자 협의(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에 미국 지방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카드를 준비 중임.
- 31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내달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상무부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이오와 등 미국 주정부와 각종 투자협의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힘.
- 정상회담 기간 이들 주정부와의 투자협약액은 25억 달러(2조8천억원)로 지난 한해 미국과 중국 기업간 거래 규모에 육박할 것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임.

■ **트럼프-시진핑, 내주 마라라고서 첫 대좌...백악관 中 공식발표(연합뉴스)**

- 세계 양대 대국(G2)이자 라이벌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인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을 갖음.
-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남자'의 만남은 북한 핵 문제와 남중국해 영해 분쟁을 포함한 아시아 안보 향배와 글로벌 무역 정책 등을 가늠할 이정표가 될 전망이어서 세계인의 시선이 이번 대좌에 쏠리고 있음.
-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6~7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 나. 미·일 관계

2017. 3. 25.

■ **日정부, 美법원에 “캘리포니아소녀상 철거해야” 이례적 의견서(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가 제기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청구가 인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22일(현지시간) 냈음.
- 일본 정부는 의견서에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에 의해 확립된 외교 방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며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은 (이 같은) 확립된 외교 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다"라고 주장함.
- 또한, 일본 정부는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 분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국(의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위안부상 옆의 비문에 '20만명의 여성이 강제로 연행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고 적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민감한 문제여서 미국의 모순되는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역지를 부림.

2017. 3. 26.

■ **日, 美와 2+2 회담서 “미사일 방위 증강하겠다” 제안 방침(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다음달 말 열릴 계획인 미국과의 외무·국방 장관 회담(2+2회담)에서

- 북한에 대응하는 탄도미사일 방위(BMD) 체제의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미일 동맹 강화를 향한 자위대의 역할 확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전함.
  - 일본의 BMD 증강론은 최근 들어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서 일본 내에서 힘을 얻고 있고, 특히 지난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쪽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거의 동시에 발사한 후 여러 발의 미사일에 함께 대응하도록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음.

### 2017. 3. 27.

#### ■ 日정부, 오키나와 지사 '美기지 이전공사 철회땀' 손해청구(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 미군 기지 이전공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오키나와 현이 또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지사가 이전공사를 저지하고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오나가 지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 오나가 지사는 지난 25일 현지에서 열린 이전공사 반대 집회에 참석,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지인 나고(名護) 시 헤노코(邊野古) 해안부 매립 승인에 대한 철회 방침을 밝힘.

### 2017. 3. 28.

#### ■ 日관방, 美대법원 소녀상 소송 패소에 '유감'...우회적 불만표시(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계 극우단체의 소송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각하되는데 대해 '유감' 등의 표현을 쓰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함.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글렌데일시의 소녀상 설치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느냐는 것이 논점인 만큼 위안부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함.
- "위안부상(소녀상) 설치 움직임은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과 상충되는 만큼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2017. 3. 29.

- **日, 자위대 '평시 美함정 방어' 첫 실시...안보법 본격 적용(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1년 전 시행된 안보법을 본격 적용해 평시에 자위대에 미국 함정을 방어하는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법에 따라 가능해진 미국 함정 방어를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시행되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공동훈련 기간 시행할 방침임.
  - 미 함정 보호 임무는 미군측의 요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를 거쳐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이 실시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됨.
  
- **美日, 동중국해에서 또 합동 훈련...中·北 견제(연합뉴스)**
  - 일본 해상자위대가 27일부터 사흘간 동중국해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발표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미군의 원자력 항공모함 전단 칼빈슨호를 중심으로 진행된 훈련에서 전술을 확인하고 통신 운영 상황을 점검함.
  -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군의 항공모함과 합동 훈련을 실시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달 들어서만 2번째 실시됨.

#### 다. 미·러 관계

2017. 3. 26.

- **美, 러 기업 8곳 제재...“이란·北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연합뉴스)**
  - 미국이 이란·시리아·북한 등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러시아 기업 및 기관 8곳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는데, 러시아와 함께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북한 등 모두 10개 국가 30개 기업·기관·개인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기업과 기관은 국영무기수출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트', '제150 항공수리공장', 군수산업체 '바잘트', 미사일·어뢰 개발 생산업체 '기계설계사무소', 울리야노프 부가예프 민간항공연구소, 류코프스키·가가린 군사항공아카데미 등임.
  -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 이행에 관한 정기 점검에서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 등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기업·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 활동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음.

2017. 3. 28.

■ **美 “러시아, 평화로운 反정부 시위자들 즉각 석방해야”(연합뉴스)**

- 도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평화적 반(反)정부 시위 참가자를 무차별 연행해 구금한 러시아 당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는데, 친(親) 러시아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러시아 국내 시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를 비판한 것은 처음임.
-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당국이 전날 수십 개 도시에서 공직자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자를 무더기로 잡아간 사실을 지적하면서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함.
- 그는 "미국은 일요일 러시아 전역에서의 평화로운 시위자들 수백 명이 구금된 사실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이들 구금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함.

2017. 3. 31.

■ **푸틴, 美에 “북극권 개발 협력하자”... 러 기업 제재해제 희망 (연합뉴스)**

- NHK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북단 도시 아르한겔스크에서 열린 북극 개발 관련 국제회의인 '북극-대화의 땅'에 참석해 연설함.
-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극권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는 북극권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극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NHK는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북극권에서의 러시아의 존재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함.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 기업에 대해 북극해 대륙붕 등의 원유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관련, "북극권의 석유개발은 러시아와 미국 모두에 큰 희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제재해제와 협력을 촉구함.

**라. 중·일 관계**

2017. 3. 27.

■ **中외교부, 日차관급 대만방문에 ‘발끈’...“문제 심각성 인식하라”(연합뉴스)**

- 일본 아카미 지로(赤間二郎) 총무 부대신(차관급)이 고위급으로서는 4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총무부대신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대만과 민간교류와 지역적인 교류만 한다는 약속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중일 양국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함.
- "일본은 올해 초부터 입으로는 대만 문제에 관한 약속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싸움을 걸고, 분쟁을 일으킨다"며 "(이번 일로 인해) 이미 중일 양국 관계 개선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함.

2017. 3. 28.

■ **中해경선, 센카쿠 주변 일본 영해 침입...日, 中에 항의(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이 28일 오후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침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 함선 4척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우오쓰리시마(魚釣島) 앞바다 일본 영해에 들어와 항해한 뒤 1시간 30분 지나 영해 밖으로 나갔으며 이후에도 중국 해경선은 센카쿠열도 일본 영해 바로 바깥쪽 접속수역(영토에서 22~44km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함.
-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중국 해경선에 영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 해경선이 영해에서 나간 뒤에는 영해 침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 방송을 함.

2017. 3. 29.

■ **日아베 “대만과 관계강화해야”...고위관료 방문이어 또 中 ‘자극’(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9일 여당 자민당의 청년국장인 스즈키 게이스케(鈴木馨祐) 중의원과 총리관저에서 만나 "대만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청년국을 중심으로 관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 이날 발언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동안의 관례를 깨고 고위급 정부 관료를 대만에 파견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반발한 가운데 나온 것임.
- 일본이 지난 1972년 대만과 국교를 끊은 뒤 중국을 배려해 정부 고위관료가 정식으로 대만을 방문하지 않도록 자제해왔던 관례를 뒤집은 것으로, 이에 중국측은 곧바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섬.

## 마. 중·러 관계

2017. 3. 29.

- **中 외교부 “러시아 사드 반대 주장 타당하다”(연합뉴스)**
  - 러시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 것에 대해 중국이 "타당한 주장"이라며 동조하고 나섬.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사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중국은 미사일 방어(MD)와 관련해 세계 전략 안정과 대국간 상호 신뢰를 신중히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함.
  - 루 대변인은 이어 "각국은 자신의 안보이익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

## 바. 일·러 관계

2017. 3. 30.

- **러시아, 영유권 분쟁 북방영토 軍요새화…日 ‘발만 동동’(연합뉴스)**
  - 러시아가 일본이 영유권 분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군 부대 주둔시설을 확충하는 등 요새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함.
  - 산케이신문은 4개 섬 중 구나시리(러시아명 쿠나시르)에 최근 건설이 진행 중인 주둔지 관련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장교용 주택과 훈련시설 등이 속속 세워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이같이 전함.
  - 러시아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도 무기 격납고에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함.

2017. 3. 31.

- **러시아, ‘영유권 분쟁’ 북방영토에 발전소·양식시설 日에 제안(연합뉴스)**
  -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발전소와 양식시설을 건설할 것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과 관련해 최근 열린

일본과의 차관급 협의에서 풍력발전소 건설과 어류 양식시설 건설을 포함해 26개 항목을 제안함.

- 일본 측은 수산물 가공공장과 지열발전소 건설 등 30개 항목을 제안, 향후 현지조사 조기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양국이 상대국의 법적 입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발전소 건설 같은 육상에서의 대형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함.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3.27	"미·유엔 인권이사회, '북 인권 압박' 협력해야"(자유아시아방송)
	3.28	美 "北인권결의 채택, 유엔인권이사회 주요 성과"(연합뉴스)
	3.28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대북 인권 제재 확대해야"(미국의 소리)
	3.29	러 축구장 건설 북한인 100여명 '노예노동'(자유아시아방송)
	3.30	헤일리 美 유엔대사 "안보리, 北인권문제 논의해야"(연합뉴스)
	3.30	한미, 트럼프 집권후 첫 北인권협의...인권정책 조율(연합뉴스)
	3.31	"유엔 북한 인권정보 증거보존소 제네바에 설치"(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3.28	이정훈 北인권대사 "사드 보복, 중국 실체 보여줘"(연합뉴스)
	3.28	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연합뉴스)
	3.30	통일부 "北, 마약제조범에 사형 추가...생명권 위협 심각"(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3.26	집단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12명, 전원 대학생 됐다(연합뉴스)
	3.27	"탈북민 '송금' 심부름하던 北국경경비대 군인 체포"(연합뉴스)
	3.27	北, 美 탈북지원단체 보조금에 "돈으로 인권광대극 조작"(연합뉴스)
	3.29	"中, 탈북자 단속에 탱크까지 배치"(연합뉴스)
대북지원	3.27	"유엔 긴급구호대상자 북한이 최다"(연합뉴스)
	3.28	통일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대북지원정보체계 구축(연합뉴스)
	3.28	핀란드, 30만 유로 대북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3. 27.

#### ■ “미·유엔 인권이사회, ‘북 인권 압박’ 협력해야”(자유아시아방송)

-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출범 두 달 여를 맞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등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 킹 전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3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오는 5월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시점이라며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계속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 3. 28.

#### ■ 美 “北인권결의 채택, 유엔인권이사회 주요 성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의 우선 과제에서의 주요 성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주요 성과로 꼽았음.
- 국무부는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증거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공동제안했다"며 "사무소가 수집한 증거들은 북한 정권에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결의에는 서울 북한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과 증거보존소 설치, 책임규명 절차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담겼음.

#### ■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대북 인권 제재 확대해야”(미국의 소리)

-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해야 하며,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도 미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로버트 킹 특사는 대북 인권 제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며 제재는 광범위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무역 관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7. 3. 29.

#### ■ 러 축구장 건설 북한인 100여명 '노예노동'(자유아시아방송)

- 1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축구장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노예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노르웨이 매체가 28일 고발했음.
- 적어도 110명 이상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자들은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휴일도 없이 새벽부터 자정까지 건설 노동에 투입된다고 함.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출신 등 여러 이민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 노동자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함.
- 2018년 월드컵 경기가 개최될 예정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축구장은 2006년부터 북한 출신 노동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이민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 착취 속에서 공사가 진행됐지만 갖은 비리 등 어려움으로 11년째 완공되지 못했음.

### 2017. 3. 30.

#### ■ 헤일리 美 유엔대사 "안보리, 北인권문제 논의해야"(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 범위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외교협회(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헤일리 대사는 지난 29일(현지시각)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간담회를 통해 "안보리가 인권과 안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시점이 왔다고 강력히 믿는다"면서 "이사국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범들을 탄광으로 보내 죽도록 일하게 하고 있다"며 "굴욕과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폭력에 의존하게 되고, 인간성과 존엄성을 빼앗긴 사람들 역시 반드시 복수를 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 ■ 한미, 트럼프 집권후 첫 北인권협약...인권정책 조율(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음.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간 회의였음.

-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 측은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 등 북한인권 공론화, 책임 규명 등과 관련한 진전 상황을 평가·점검했음.

### 2017. 3. 31.

#### ■ “유엔 북한 인권정보 증거보존소 제네바에 설치”(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UHRC)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 북한 인권정보 증거보존소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함.
- 유엔 프로그램계획예산국(OPPBA)은 최근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민감한 정보의 완전한 비밀 유지와 보안을 위해 증거보존소가 물리적으로 제네바에 근거를 뒀야 한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제네바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최소 7년 경력의 법률 담당관 1명과 실무를 담당할 최소 5년 경력의 정보관리 담당관 1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어 "서울사무소에는 국제형사제도 전문가 1명과 한국 형사법 전문가 1명, 그리고 한국법 통역 전문가 1명 등 3명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 특이사항 없음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2017. 3. 28.

#### ■ 이정훈 北인권대사 “사드 보복, 중국 실체 보여줘”(연합뉴스)

-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북한 인권 유린'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보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방위 조치를 예시하면서 "북한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드문제와 중국의 반응은 중국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말했음.
-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 인권은 이제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없게 다"면서 "북 인권 문제는 이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핵 위협과 같은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음.

-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 초국적 범죄와 테러리즘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형태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연합뉴스)

- 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달 24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한 데 대해 28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 환영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엔 차원의 증거수집이 이뤄지는 데 의미가 크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구체적 조치가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음.
- 인권위는 결의안이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 자행한 범죄'와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촉구해 북한인권 논의 영역을 대폭 확대한 것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7. 3. 30.

#### ■ 통일연 "北, 마약제조범에 사형 추가...생명권 위협 심각"(연합뉴스)

- 통일·북한 문제를 다루는 통일연구원은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발간되는 '북한인권백서 2017'에 북한 당국이 최근 사형이 가능한 죄목을 늘리고 공개 처형을 지속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3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비법(불법) 아편재배·마약·독성물질 제조죄'(206조)에 대해 가해지는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음.
- 아울러 구금 시설에서도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강제 송환자들이 주로 수용된 국경 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는 불에서 꺼낸 장작으로 구타하거나 고정자세 강요·수면방해 등 심각한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음.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3. 26.

#### ■ 집단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12명, 전원 대학생 됐다(연합뉴스)

- 작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에 성공해 한국에 입국한 12명의

북한 종업원들이 전원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 당국자는 26일 "집단 탈북한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올해 모두 대학에 특례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대부분 20대 초중반인 이들은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이 당국자는 전함.
- 관계 당국은 북한이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이들의 탈북을 납치라고 주장하는 데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커져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음.

### 2017. 3. 27.

#### ■ “탈북민 ‘송금’ 심부름하던 北국경경비대 군인 체포”(연합뉴스)

- 한국 내 탈북민이 북한 가족한테 보내는 돈을 중국에서 받아 북한으로 돌아가던 북한 군인이 체포됐다고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음. 양강도 소식통은 "이달 중순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 25여단 1대대 소속 한 군인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국경을 넘다 현장에서 (북한 측에) 체포됐다"며 "이 군인은 (중국에서) 돈을 받아오던 중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보위지도원에게 발각됐다"고 말했다.
- 조사 결과 체포된 군인은 그동안 주민들의 탈북을 돕거나 한국에 있는 탈북민의 돈을 북한 가족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남.
-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양강도, 함경도 등 국경 지역의 경비대 군인들이 중국에 다녀오는 일은 비교적 수월했지만, 최근에는 "국경 경계가 강화하면서 (단속)실적을 쌓기 위해 보위지도원을 비롯한 군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복근무를 서고 있다"고 전했다.

#### ■ 北, 美 탈북지원단체 보조금에 “돈으로 인권광대극 조작”(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동남아 지역 탈북민 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미국 정부를 가리켜 "돈으로 인간 쓰레기들의 광대극을 조작한다"며 원색 비난했음.
- 논평은 "'북핵 위협' 등의 악선전으로 압살 책동의 명분을 마련해 오던 미국이 극도로 당황 망조하여 단말마적으로 해대고 있는 것이 바로 도주자(탈북민)들을 이용한 대조선 '인권' 모략소동"이라고 주장했다.
- 논평은 "반인권적인 이주민 정책 실행에만 골몰하는 미국이 한 줌도 안되는

'탈북자'들에게 선심을 쓰며 '인권'을 떠든다고 하여 그에 속을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에둘러 비난하기도 했음.

2017. 3. 29.

■ “中, 탈북자 단속에 탱크까지 배치”(연합뉴스)

- 북·중 접경지역에 주둔한 중국의 변방부대가 최근 탱크까지 앞세워 탈북자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대북전문매체 뉴포커스가 29일 보도했음.
-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 중국 변방부대가 국경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에도 이동식 초소가 설치되고 탱크를 비롯한 중형 포까지 배치됐다"고 말했음.
- 이 매체는 탈북자 감시 강화의 배경에 대해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중국이 탈북자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 5. 대북지원

2017. 3. 27.

■ “유엔 긴급구호대상자 북한이 최다”(연합뉴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는 2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 가운데 당장 유엔의 도움이 필요한 곳의 현황을 발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가운데 북한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이 보고서는, 북한 전체 인구의 72퍼센트를 차지하는 1천800만명 가량이 식량과 영양 부족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가운데 1천300만명은 당장 긴급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난 21일 유엔이 발표한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DPRK Needs and Priorities 2017)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음.

2017. 3. 28.

■ 통일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대북지원정보체계 구축(연합뉴스)

- 28일 통일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연말까지 4억여 원을 들여 민간에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음.

- 통일부는 단순 물품 지원 중심이었던 내부 시스템을 사업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체계적 정보관리를 통해 통일 대비 민생인프라 구축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계획서에 밝혔음.
- 아울러 원활한 대북지원 사업 관리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국민 소통채널도 따로 마련하기로 했음.

■ **핀란드, 30만 유로 대북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가 인도주의적 자금으로 북한에 30만 유로, 미화 약 32만 5천700달러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음.
- 카이 미카넨 핀란드 외교통상장관은 이날 “핀란드의 인도주의 지원액은 총 6천140만달러 달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식량과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에 지원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핀란드가 북한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에 위해 쓰일 예정이며, 이 지원금은 북한의 비료, 감자 등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입될 것으로 전해짐.